**서양역사의 이해 3주차**

로마제국과 지중해 세계

**로마 공화정의 발전**

**로마왕국의 성립**

처음에 왕국으로 만들어짐.

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에 있었고, 중부지역은 라틴사람이 살았음.남부는 그리스인.

평야에 살았는데 평야가 굉장히 비옥했음.

초기 사회 구조는,   
씨족 기반, 종족 및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.

귀족 : 시민권 소유한 특권 계급

평민 : 특권이 없는 계급. 자유민이며 소농(자경농, 스스로 자신의 땅에서 경작하는 농업인.), 수공업자 등으로 민회에 참석하는 것 이외에는 참정권이 없었음.

예민 : 귀족의 토지를 경작하고, 대여비 납부하는 소작농 같은 계급이었음.

노예 : 전쟁포로나 재무적인 노예.

귀족이 에트루리아인 왕을 추방했고,귀족에 의한 공화정이 시작되었음. Bc700

로마는 도시국가였기에 강에 있던 언덕을 배경으로 해서 살았다. 거기서 수성도 하면서.

포룸로마노라는 광장이 있었고, 그 중심으로 도시가 있었다.

서양국가들이 일종의 모델로 삼았던 나라가 로마였다.

그래서 근대 서양에서 대부분 로마로 수학여행을 오기도 했다고.

로물루스 신전이 있었다.

**공화정의 수립**

로마가 공화정으로 불리는 이유는, 아테네 사회에서는 18세만 넘으면 다 동등한, 평등한 신분사회였지만, 로마사회는 귀족도 존재하고, 귀족중심으로 정치도 진행했으며, 자유민(평민)이외에 다른 신분도 존재했기에 귀족과 평민이 신분상으로 완전히 평등하지 않았다. 반면 아테네는 귀족이 없고 평등했으니.

**공화정의 정치기구**

귀족정의 성격이 컸음.

통령(집정관) : 씨족의 쿠리아회에서 2명을 선출해 군사, 사법, 종교등의 주권을 행사했음. 상호간의 거부권이 인정되었지만, 실질적으로 권한은 원로원이 장악했음. 두명인 이유는 서로 견제시키기 위해서.

독재관 : 국가 비상시 국정을 장악함. 1인이며, 임기는 6개월.

원로원 : 60세 이상인 300명의 귀족으로 구성되었다. 종신체?이며 정치기구의 행심이었다.

통령과 독재관은 행정직원급이었고, 사실상 원로원이 다해먹었다.

**평민세력의 대두**

중장보병의 핵심이 평민이었기에, 전투에서 큰 중심이 되었다. 그래서 지위가 향상되었다.  
그리고 평민의 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.

평민들도 자신이 하는 만큼 대우 받고 싶어했기에, 귀족과 평민 사이의 정치투쟁이 격화되었고, 평민의 지위가 부분적으로 인정되게 되었다.

**호민관제도의 성립**

평민이 로마 근교에 도시를 건설해 떨어져 나가려던 성산사건이 있었다.

그래서 그거 맞춰주려고 평민회가 만들어지며 타협점을 찾고,

2명의 호민관이 선출되는 권한을 평민에게 줌.